Arthur Honegger: *Rugby*

- **:** Arthur Honegger (1892–1955)
- **:** *Rugby* (Mouvement symphonique no. 2, H.67)
- **:**
- **:** 1928 8–9
- **:** 1928 10 19 , Théâtre des Champs-Élysées, Orchestre symphonique de Paris, Ernest Ansermet
- **:** 1928 , Paris, Maurice Senart
- **Wikipedia:** https://fr.wikipedia.org/wiki/Rugby_(mouvement_symphonique)

Arthur Honegger *Rugby* . 1928 H.67 8 Allegro , .

Honegger 1920 . *Pacific 231* , *Rugby* .

Honegger .

1928 9 , Maurice Senart . IMSLP E.M.S. 7825, E.M.S. 7819 . René Delange . , .

작품이 실제 연주를 전제로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다.

Rugby는 Mouvements symphoniques 세 곡 가운데 두 번째다. 앞의 Pacific 231과 뒤의 제 3번 운동곡은 모두 제목이 운동을 가리키지만 , Rugby의 운동은 기계의 지속적인 진행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반응에 가깝다. 곡을 두 작품의 단순한 짝으로 듣기보다, Honegger가 같은 관현악 자원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힘을 실험한 연작으로 이해하면 좋다.

소요 시간

전곡은 대체로 8분 안팎이다. 작품 안내에서 8–10분으로 제시되며, 녹음에 따라 7분대 후반에서 8분대
중반까지 차이가 난다. 짧은 길이 안에 도입, 운동의 집중, 서정적인 이완, 다시 밀집하는 종결이 이어지므로 , 각 단락 사이의 대비가 곡의 전체 인상을 좌우한다.

편성

목관: 플루트 3(제 3은 피콜로 겸함), 오보에 3(제 3은 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 3(제 3은
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바순 3(제 3은 콘트라바순 겸함)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타악기: 없음

타악기가 없는 편성인데도 리듬의 충격은 약해지지 않는다. 현악의 빠른 음형이 바닥을 계속 움직이고, 목관은 짧은 발화를 여러 방향으로 흩뿌리며, 금관은 악센트와 두꺼운 화음으로 순간적인 압력을 만든다. Flaminioonline과 공연 해설은 이러한 편성이 경기의 몸싸움을 북소리로 흉내 내기보다 관현악 내부의 선과 악센트로 조직한다고 설명한다. 타악기 부재 자체를 곡 전체의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각 악기군의 발음이 훨씬 직접적으로 들리는 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단일 악장 구조

작품은 Allegro 한 악장으로 이어지며, 반복되는 동기와 대조 단락이 돌아오는 론도에 가까운 흐름을 가진다. 정확한 마디별 도식보다, 짧은 몸짓이 나타나고 흩어졌다가 변형되어 돌아오는 과정이 형식을 만든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빠른 현악과 첫 동기

시작부터 바이올린의 상승형과 반복되는 셋잇단음표가 움직임을 몰아붙인다 . 곧 트롬본이 짧고 뚜렷한 동기를 제시하고, 이 재료가 다른 악기군으로 옮겨 간다. AllMusic의 해설이 ‘공이 패스되는 듯하다 ’고 표현한 부분은 실제 경기 장면을 지정하는 표제가 아니라, 동기가 한 성부에 고정되지 않고 관현악을 가로지르는 청취 인상이다.

현악은 일정한 배경으로 물러나지 않는다. 빠른 음형이 계속 방향을 바꾸면서 목관의 짧은 응답과 금관의 공격을 이어 준다. 악기군이 같은 동기를 서로 다른 음역과 음색으로 받아칠 때, 한 덩어리가 앞으로 밀렸다가

.

.

. .

. TŌN .

. .

.

. AllMusic .

. .

. .

. Honegger .

. .

.

. .

. .

.

. .

. .

. .

. *Rugby* .

주요 레코딩

Arthur Honegger 지휘, 작곡가 자신의 녹음 (1929–1930년 기록): 78회전 음원으로 남은
역사적 기록이다. Discophage가 소개하는 재발매판에서는 현대 스테레오처럼 세밀한 음향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Honegger가 자신의 운동곡을 어떤 속도와 무게로 다루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음향의 한계까지 포함해 문헌적인 청취 대상으로 접근하는 편이 좋다.
Charles Dutoit /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Erato·Ultima, 1984–1986): Pacific 231과 교향곡들을 함께 담은 전집 맥락에서 Rugby를 들을 수 있다. Apple Music Classical의 트랙 시간은 7분 44초이며, MusicWeb 평론은 Dutoit이 복잡하게 겹치는 선을
투명하게 정리한다고 평한다. 빠른 표면 아래의 악기군 교대를 확인하기에 유용한 현대 녹음이다. Takuo Yuasa / 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Naxos 8.555974, 2002): Wellington Town Hall에서 녹음한 트랙은 7분 49초다. MusicWeb의 평론은 Yuasa의 연주에서 Bernstein보다 큰 드라마와 긴장이 살아난다고 보며, 높은 음질도 장점으로 든다. 현악의 추진과
금관의 압력이 한 번에 모이는 결말을 듣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다.

주요 자료

IMSLP, Rugby, H.67: 1928년 Senart 초판, 총보 ·파트, 편성 정보.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Rugby H.67: 작품 식별 정보와 초판 서지.

The Morgan Library & Museum, Honegger 자필 총보: 1928년 자필 악보와 날짜 ·소장 기록.

AllMusic, Rugby 해설: 동기의 교대, 현악 ·저음의 질감, 종결부 청취 분석.

The Orchestra Now, “Arthur Honegger’s Rugby”: 편성의 색채와 스포츠 비유를 활용한 공연 해설.
YourClassical, “Honegger plays rough”: 초연과 Honegger의 프로그램음악 관련 발언 소개.

MusicWeb International, Yuasa/Naxos 녹음: 2002년 녹음과 연주 평가.

MusicWeb International, Dutoit/Ultima 전집, Apple Music Classical 트랙: Dutoit 녹음의 발매 정보와 작품 시간.
Discophage, Honegger conducts Honegger: 작곡가 자신의 역사적 녹음과 재발매 정보.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8:56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8:57 UTC by 안준영